

대한민국 제네바협약 가입 60주년 기념 특별전  
Special Exhibition on 60th Anniversary of  
Republic of Korea's Accession to the Geneva Conventions

# WARS HAVE LIMITS

전쟁에도 선은 있다

2026.5.15-8.9

서울역사박물관  
Seoul Museum of History

주최 Organised by



협력 In cooperation with



Schweizerische Eidgenossenschaft  
Confédération suisse  
Confederazione Svizzera  
Confederaziun svizra

Embassy of Switzerland in the Republic of Korea

후원 Sponsored by





©Mohammad Yassine/ICRC 1



©Karrar Al-Moayyad/ICRC 2



©Hugh Kinsella Cunningham/ICRC 3

**전쟁은 우리 시대를 규정하는 특징이 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30개 이상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15년 전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단순히 전쟁의 횟수만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분쟁은 더 오래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며, 20개 이상의 분쟁이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쟁 외에는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한 채 성장하는 세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한 대가는 분명합니다. 바로 참혹한 인간의 고통입니다. 역설적으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자원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전쟁은 격화되고 있으며, 고통받는 이들은 늘어가는 반면 이들을 도울 자원은 빠르게 줄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잠시 멈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전 세계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하나의 사실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령 전쟁 중일지라도 최소한의 선은 지켜야 한다는 점에 전 세계는 이미 뜻을 모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쟁 중 인류애를 지키기 위해 체결된 **제네바협약**으로, 이는 전 세계가 비준한 보기 드문 국제적 합의입니다.

올해는 대한민국이 **제네바협약에 가입한 지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이 협약을 준수해야 할 우리의 공동 책임을 준엄하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서울역사박물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 여러분이 전쟁과 물리적, 심리적으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제네바협약의 의미를 되짚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왜 이 협약이 오늘날, 그리고 미래에도 변함없이 중요한지 성찰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Wars have become a defining feature of our time.**

There are currently over 130 conflicts worldwide—more than double the number 15 years ago. There aren't just more wars. Today's conflicts are also more likely to be protracted with more than 20 conflicts enduring for over two decades. In such contexts, entire generations grow up knowing nothing but war. The cost of these trends is unmistakable: a horrific scale of human suffering. The big paradox is that the resources to help the affected population are under growing strain.

The reality is that wars are raging, more people are suffering, and resources that can help them are shrinking fast. It's worth taking a step back to ponder on something that the entire world has agreed on when it comes to war. The world has agreed that even in war, there are limits through the **Geneva Conventions**—internationally agreed rules on humanity in war. The Geneva Conventions are one of the few treaties that are universally ratified.

This year marks the 60th anniversary of the Republic of Korea's accession to the Geneva Conventions, and today's reality serves as a stark reminder of the shared responsibility to uphold them.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and the Seoul Museum of History hope that through this exhibition, the visitors—however distant they may be from war physically and/or psychologically—will have an opportunity to look back at the Geneva Conventions and reflect on why they mattered yesterday, matter today, and will continue to matter tomorrow.

- |   |  |  |   |
|---|--|--|---|
| <p>1. 레바논에서 한 가족이 미사일 공격으로 파괴된 집에서 있다.</p> <p>2. 예멘에서 파괴된 건물들 가운데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다.</p> | <p>3. 콩고민주공화국에서 교전으로 머리에 총상을 입은 후 말을 할 수 없게 된 10세 아이</p> | <p>1. A family in a home destroyed by missile attack in Lebanon</p> <p>2. Children play football amidst destroyed houses in Yemen.</p> | <p>3. A 10-year-old boy in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who was shot in the head from hostilities and has been unable to speak since the injury</p> |
|---|--|--|---|

## 우리 모두가 합의한 규칙

19세기 후반, 총기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전장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이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 솔페리노 지역을 지나던 스위스의 사업가 앙리 뒤낭은 전장에서 부상당해 버려진 채 고통받고 죽어가는 수만 명의 병사들을 목격하며 그 비참한 실상을 마주했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뒤낭은 두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 • 모든 국가가 전장의 부상자를 돌볼 수 있는 자원봉사 단체를 평화 시에 설립할 것 • 모든 국가가 전장에서 부상자와 이들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을 보호하기로 합의할 것입니다.

첫 번째 제안은 현재 전 세계 191개국에 있는 **적십자사 및 적신월사의 기원**이 되었으며, 두 번째 제안은 오늘날 196개국이 비준한 **제네바협약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1903년 1월 8일, 당시 대한제국은 1864년에 체결된 제네바 제1협약에 정식으로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당시 태동하던 국제인도법 체계에 비유럽 국가로서는 선구적으로 동참한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지나 1966년에서야 비로소 대한민국은 1949년 제네바 4개 협약에 정식으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 The One Set of Rules We All Agree On

In the second half of the 19th century, the rapid development in firearms technology led to a dramatic increase in the number of dead and wounded in war.

Henry Dunant, a Swiss businessman, witnessed the misery of tens of thousands of soldiers abandoned—dead or wounded—on the battlefield in Solferino in Italy. From this experience, he proposed to • to set up in peacetime, and in every country, volunteer groups to take care of casualties in wartime, and • to convince countries to agree to protect first aid volunteers and the wounded on the battlefield.

The first proposal is the **origi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that now exist in 191 countries; and the second is the **origin of the Geneva Conventions**, now signed by 196 High Contracting Parties.

On 8 January 1903, Korea—then Korean Empire (also known as Daehan Empire)—signed the first Geneva Convention of 1864. This made Korea one of the earliest non-European States to commit to the emerging system of humanitarian law. But it was in 1966—aft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of Korea and the Korean War—that the Republic of Korea (ROK) was able to formally join all four Geneva Conventions of 1949.



©ICRC

4



©ICRC

5



©ICRC

4. 앙리 뒤낭이 목격한 솔페리노 전투
5. 1949년 8월 21일 제네바협약 개정을 위한 외교회의

6. 1966년 8월 16일, 제네바 주재 대한민국 대표부가 ICRC에 보낸 제네바협약 가입 통보 서한

4. The Battle of Solferino that Henry Dunant witnessed
5. Diplomatic Conference on 12 August 1949, for the revision of the Geneva Conventions

6. Letter from the Korean Permanent Mission in Geneva on 16 August 1966 informing the ICRC of the ROK's accession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949



**6.25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발생한 첫 대규모 국제 분쟁이었습니다.**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에 따라, ICRC는 전쟁포로 중앙정보국(Central Agency for Prisoners of War)을 운영하며 포로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들의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ICRC는 남한 내 군 병원, 포로수용소, 민간인 억류 시설을 160회 이상 직접 방문하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호물자를 전달하는 것은 물론, 포로와 억류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ICRC가 6.25 전쟁 당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구호 활동을 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CRC는 약 6만 5천 스위스 프랑 (현재 가치 기준 약 150만 달러 / 약 21억 7천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유엔 민간원조 사령부에 전달할 수 있었고, 이후 현장 방문을 통해 이 물자들이 남한에 억류된 이들을 치료하는 데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ICRC는 1953년, 약 1만 5천 스위스 프랑 (현재 가치 기준 약 36만 5천 달러 / 약 5천 2백만 원) 상당의 의료 물품을 민간인들에게 전달했으며, 특히 대한적십자사와 협력하여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 시계 300여 개를 전달하는 활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The Korean War was the first major international conflict after the Second World War.**

In accordance with the Geneva Convention on the Treatment of Prisoners of War, the ICRC operated the Central Agency for Prisoners of War, disseminating information on detainees. ICRC visited and conducted inspections on military hospitals, prisoner of war (POW) camps and civilian internment camps in the Republic of Korea over 160 times—delivering relief items and advocating for better treatment for the POWs and internees.

ICRC faced many limitations in bringing relief to the Koreans during the Korean War. Nonetheless, ICRC was able to deliver about 65,000 Swiss francs (approximately 1.5 million USD in today's value) worth of medical supplies to the United Nations Civil Assistance Command for Korea and made sure through visits that these supplies had reached and were being used to treat detainees in prisons in the ROK. ICRC also managed to launch a small relief operation directly to the civilian population in ROK in 1953. As a result, ICRC delivered about 15,000 Swiss francs (approximately 365,000 USD in today's value) worth of medical supplies to civilians and worked with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Red Cross to deliver about 300 braille watches to the visually impaired.

- |   |   |   |   |
|---|---|---|---|
| <p>7. 1952년 서울 광화문 일대</p> <p>8. 1950년 12월 29일 대규모 피난민들</p> <p>9. 경기도 문산에서 포로 교환을 위해 문산에 정박한 함정들. 포로교환은 1953년 4월 20일부터 5월 2일까지 진행됐다.</p> <p>10. 1950년 7월 29일 부산의 포로수용소에서 ICRC 관계자가 소년 전쟁 포로와 대화하는 모습</p> | <p>11. 경기도 문산에서 포로 교환을 위해 대기 중인 구급차들</p> <p>12. 1952년 춘천 인근. 미군 제9군단 소속 적십자 부국장이 한국의 한 병원에서 적십자 구호 물품을 배포하고 있다.</p> | <p>7. The area around Gwanghwamun in Seoul in 1952</p> <p>8. Refugees are seen riding on top of freight train in Daegu Station on 29 December</p> <p>9. Vessels anchored for a prisoner exchange in Munsan, Gyeonggi Province from 20 April to 2 May 1953</p> | <p>10. An ICRC delegate in conversation with a young prisoner of war at a POW camp on 29 July 1950</p> <p>11. Ambulances for a prisoner exchange in Munsan, Gyeonggi Province</p> <p>12. Near Chuncheon in 1952. The assistant director of the Red Cross of the U.S. IX Corps distributes Red Cross gifts in a Korean hospital.</p> |
|---|---|---|---|

## 도전받는 '전쟁의 규칙'

## 'Rules of War' Being Tested

국제인도법은 명확합니다. **민간인과 민간 기반 시설은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의료인과 응급처치 요원, 의료 시설과 수술 수단 역시 마땅히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인도주의 활동가와 시설 또한 결코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는 전쟁뿐 아니라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진 전쟁에서도 **국제인도법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군사적 목적에 따라 자의적으로 재해석되기도 합니다. 전력과 식수, 의료 서비스 등 사람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들이 표적이 되고 파괴가 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도심에서 고폭발성 무기가 사용되며 사람들의 보금자리와 아이들의 학교가 잿더미가 되기도 합니다.

전쟁 규칙 위반의 파장은 단순히 멀리 떨어진 전장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 어디에 살고 있든, 그것은 우리 삶을 지탱하는 근간인 안정과 안보, 가치, 그리고 인류애를 위협합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ICRC는 여러 국가와 협력하여 국제인도법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고 강화하기 위해 2024년 『**국제인도법 글로벌 이니셔티브(Global Initiative on IHL)**』를 출범했습니다. 현재 100개국 이상의 국가가 동참하고 있으며, ICRC는 더 많은 국가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 is clear: **Civilians and civilian infrastructure must be spared from attack.** Medical workers, first responders, as well as medical transport and facilities must be respected and protected. Similarly, humanitarian workers and premises must also be respected and protected.

Today, as wars rage—both in the spotlight and out of it—**those rules are being challenged** and, at times, reinterpreted to serve military aims. Infrastructure for electricity, water supplies and health care—vital for survival—get targeted and destroyed. The use of heavy explosive weapons in urban settings destroy people's homes and schools.

The impact of erosion of the rules of war is not confined to distant battlefields; it threatens the very stability, security and values that underpin our lives, no matter where in the world we live, and our shared sense of humanity.

Against this backdrop, the ICRC— together with several States—has launched in 2024 **the Global Initiative on IHL** to galvanise and strengthen political commitment to IHL. Today, more than 100 States have joined this multinational initiative. ICRC invites more countries to join.



©Toufic Rmeiti/ICRC

13



©ICRC

14



©Federico Rios Escobar/ICRC

15



©Abdulmonam Eassa/ICRC

16



©Alex Majoli/ICRC

17



©ICRC

18

- 13. 최근 중동 내 분쟁으로 인해 레바논을 떠나야 했던 한 소녀
- 14. 2025년 필리핀 마긴다나오 델 수르, 어린이집이 총탄으로 훼손된 채 버려졌다.
- 15. 2023년 파나마의 '다리엔 갭' 인근, 인도적 위기로 매년 수십만 명이 죽음을 불사하고 이곳을 건넌다.

- 16. 2018년 시리아 다마스쿠스 인근 동구타 지역
- 17. 2025년 남수단 주바, 한 소년인 의족을 착용하고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
- 18. 2024년은 인도주의 활동가들에게 가장 잔인한 해 중 하나였다.

- 13. A girl who had to flee Lebanon due to conflict in the Middle East in March this year.
- 14. A bullet-ridden daycare in a village in Maguindanao del Sur in the Philippines last year.

- 15. Darién Gap in Panama in 2023.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annually cross this perilous area to flee the humanitarian disaster.
- 16. The streets in eastern Ghouta in Syria in 2018
- 17. A boy takes his first steps with a prosthesis in Juba, South Sudan in 2025
- 18. 2024 was one of the deadliest years on record.

## 드론, 인공지능(AI), 자율무기체계... 오늘날의 전쟁

## Front lines Stretch into New Domains

### 전쟁의 지형이 확장되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전선은 이제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뻗어가고 있고, 그 이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심지어 우주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드론, 인공지능(AI), 자율무기체계의 도입은 전쟁의 수단과 속도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실종자 수색이나 위험 지역으로의 구호물자 전달처럼 인도적 활동에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민간인에게는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개인 정보 침해는 물론, 민간인이나 민간 기반 시설을 군사 목표로 오인하거나 표적으로 삼는 등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전 세계 100여 개국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ICRC는 디지털화된 전쟁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 왔습니다. AI의 예측 불가능성, 데이터 및 알고리즘의 편향성, 그리고 국제인도법 위반 및 민간인 피해 가능성 등 현재 이러한 기술들이 내포한 위험을 고려할 때, 무력 충돌 상황에서 인간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는 **인간의 통제권과 판단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ICRC의 입장입니다.

### The geography of war is expanding and evolv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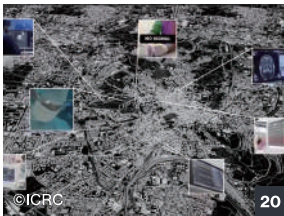
Front lines stretch across hundreds of kilometres and into new domains, from cyberspace to outer space. The use of drones,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autonomous weapon systems is redefining the means and tempo of war. Technology can enhance humanitarian work—for example, locating a missing person or delivering aid to dangerous areas—but more often it can have devastating effects on civilians, like infringing on personal data, or targeting and/or misidentifying civilians or civilian infrastructure as military objectives.

Drawing on the institution's front-line experience in more than 100 countries worldwide, the ICRC has consistently voiced its concerns on digitalised warfare and has been working with experts from various sectors on the issue. Given the current risks with these technologies—like unpredictability of AI systems, bias in data and algorithms, and potential of disrespecting IHL and harming civilians—The ICRC **believes it is essential to preserve human control over tasks and human judgment in decisions** that may have serious consequences for people's lives in armed conflict.



©Yuriy Shafarenko/ICRC

19



©ICRC

20



©ICRC

20

19. 뉴욕 유엔 건물에서 열린 "딥페이크와 당신"이라는 전시. ICRC가 스위스 정부와 로잔 연방 공과대학과 협업해 오늘날 전쟁의 디지털 위험을 조명했다.

20. ICRC가 제작한 '디지털 딜레마'라는 상호작용형 웹사이트

19. The ICRC presented at the UN headquarters in New York the "Deepfake and You" exhibition jointly with Switzerland and the Swiss Federal Institute of Technology in Lausanne to raise awareness about digitalised warfare.

20. ICRC's 'Digital Dilemmas' interactive website



**제네바에서는 매일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생명을 구하는 결정들이 내려집니다.**

이러한 결정들 상당수가 실제 뉴스로 보도되지는 않지만,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네바는 국제 협력의 중심지입니다. 스위스 서부 레만호 기슭에 위치한 제네바에서 재난과 분쟁 피해자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 조율됩니다. 나아가 전문가들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에 대응하며, 전 세계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댑니다. 또한 이곳은 폭력이나 부당함을 겪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제네바가 특별한 것은 다양한 국제 기구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는 점입니다. 제네바에서 이들은 지식과 경험, 아이디어를 공유합니다. 이러한 주체들이 함께 만들어낸 것이 바로 『국제 제네바(International Geneva)』입니다. 이는 전 세계의 평화, 인권, 그리고 복지를 위해 매일 노력하는 국제 네트워크입니다.

오늘날 제네바는 흔히 ‘평화의 도시’로 불립니다. 이곳은 중재, 평화 구축, 안보 및 분쟁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세계 인도주의의 중심지로도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네바는 전쟁과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규범 발전의 핵심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제네바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 포함됩니다.

**Every day, decisions are made in Geneva that improve and save lives.**

Most of these decisions do not make international headlines, yet they have a real impact on millions of people around the world.

Geneva is a hub for global cooperation. In this city on Lac Léman in western Switzerland, humanitarian aid is coordinated for victims of disasters and conflicts. Experts work together to address environmental challenges, combat diseases, and respond to global crises. It is also a place where people affected by violence or injustice can make their voices heard.

What makes Geneva special is the concentration of international actors in one place. Organisations from across the world work side by side, sharing knowledge, experience, and ideas. Together, these actors form what is known as “International Geneva,” a network that works daily for peace, human rights, and the well-being of people worldwide.

Today, Geneva is often called the “city of peace.” It plays a key role in mediation, peacebuilding, and research on security and conflict. It is also widely recognised as the world’s humanitarian capital. The city is central to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rules that protect people in times of war and crisis, including the Geneva Conventions and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21. 국제연합 유럽본부인 팔레 데 나시옹  
22. 제네바의 몽블랑고 위 스위스 국기와 적십자, 적신월, 적수정 표장이 있는 깃발

23. 제네바의 팔레 데 나시옹에 있는 인권 및 문명연합 회의실(제20호 회의실, Room XX).

21. The Palais des Nations, Geneva  
22. The Swiss flag and Red Cross, Red Crescent and Red Crystal emblems flying on the Mont Blanc Bridge in Geneva

23. The Human Rights and Alliance of Civilizations Room (also known as Room XX) at the Palais de Nations in Geneva



# ICRC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1863년에 설립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제 인도주의 단체입니다. 1949년 제네바 협약에 근거를 두고 인도주의 임무만을 수행하는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기구로, 무력 충돌을 비롯한 여타 폭력 상황에서 희생자의 생명과 인간 존엄성을 보호하고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이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적십자·적신월운동을 탄생시켰으며, 노벨평화상을 4회 수상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전 세계 90여 개국에서 1만 6천여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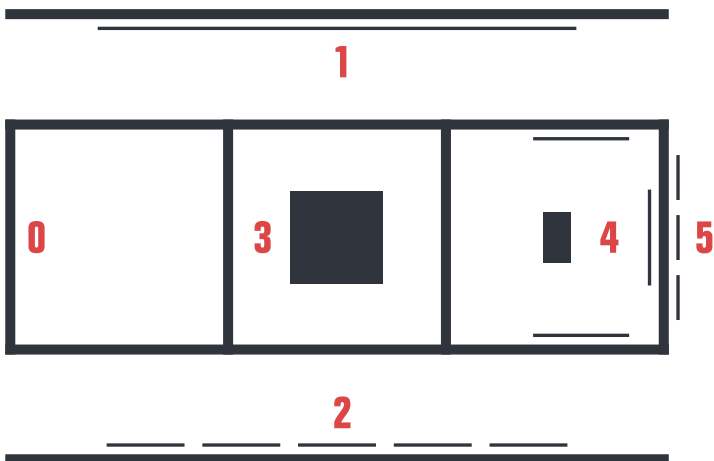
Established in 1863,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is the world's oldest international humanitarian organization still active. It is a neutral, impartial and independent organization with an exclusively humanitarian mandate that stems from the Geneva Conventions of 1949. It helps people around the world affected by armed conflict and other violence, doing everything it can to protect their lives and dignity and to relieve their suffering. The ICRC is at the origin of the Inter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Movement, and it was awarded the Nobel Peace Prizes as a tribute to its humanitarian activities. With its headquarters in Geneva, Switzerland, about 16,000 ICRC staff members are working in over 90 countries around the world.



서울역사박물관은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정리하여 보여줌으로써 서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심화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의 대표 박물관입니다. 종로구에 위치한 본관을 중심으로 도시 곳곳의 역사 거점 및 기관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의 변천사를 입체적으로 전달합니다. 박물관은 서울의 뿌리와 시민의 생활, 그리고 현대 서울로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설전시와 함께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현대적 관점에서 조명하는 다양한 기획전시를 비롯하여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어린이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The Seoul Museum of History is the city's representative museum, dedicated to deepening the understanding of Seoul by showcasing its history and culture. Centered around its main building in Jongno-gu, the museum is organically connected with historical landmarks and branches throughout the city, offering a multi-dimensional perspective on the evolution of this metropolis. Alongside its permanent exhibitions, which trace Seoul's roots, its people's lives, and its modernization, the museum hosts diverse special exhibitions that illuminate Seoul's heritage from a contemporary viewpoint, as well as a dedicated Children's Museum for families.

## 평면도 Floor Plan



## 안내 Information

### 전시 기간

2026년 5월 15일 - 8월 9일  
매주 월요일 휴관

### 전시 장소

서울역사박물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5

### 운영 시간

화요일 - 일요일  
9:00 - 18:00 (마지막 입장 17:30)

### Exhibition Period

15 May - 9 August 2026  
Closed on Mondays

### Location

Seoul Museum of History  
55 Saemunan-ro, Jongno-gu,  
Seoul, Korea

### Visiting Hours

Tuesdays - Sundays  
9:00 - 18:00 (last entry at 17:30)

### 문의 Inquiries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한국사무소

ICRC Mission in Seoul

+82-2-779-5377  
seo\_seoul@icrc.org  
kr.icrc.org

이 출판물에 실린 모든 글은 각 저작권자의 저작권에 따라 보호됩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및 서울역사박물관의 허락 없이 이 출판물의 어떠한 부분도 복제할 수 없습니다.

All texts published in this brochure are subject to the copyright of each respective copyright holder.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and the Seoul Museum of History.